

현안과 과제

- 제조업 M&A의 국제 비교와 시사점
-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 M&A를 활용한 비유기적 성장 전략이 필요

목 차

■ 제조업 M&A의 국제 비교와 시사점

-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 M&A를 활용한 비유기적 성장 전략이 필요

Executive Summary	i
1. 연구배경	1
2. 국내 제조업의 M&A 동향 : 주요국 비교	4
3. 시사점	11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백 흥 기 이 사 대 우 (2072-6228, hkback@hri.co.kr)

정 책 조 사 실 : 이 장 균 수 석 연 구 위 원 (2072-6231, johnlee@hri.co.kr)

< 요약 >

■ 연구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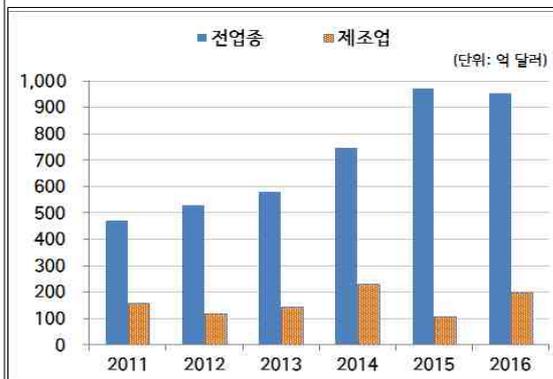
국내 제조업은 외형 성장 회복과 경쟁력 확충이 필요하다. 2010년 18.5%였던 매출액증가율이 2015년에는 역성장(-3.0%)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글로벌 제조경쟁력 순위도 2020년 6위(2010년 3위, 2012년 5위, 2015년 5위)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에 맞춰 새로운 사업 역량을 확보하는 것도 당면 과제이다. 이에 내부 역량 확충(organic growth)으로 대응하기보다는 M&A와 같은 외부 역량에 기반한 비유기적 성장(inorganic growth)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M&A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M&A는 2014~2016년간 이전 3년간에 비해 115% 증가할 정도로 전세계 제조업체가 M&A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본 연구는 인수기업으로서 국내 제조업의 M&A 동향을 미국, 독일, 일본, 중국과 비교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세계 주요국의 제조 르네상스 정책이 본격화한 2014년을 기점으로 2011~2013년과 2014~2016년 M&A 실적 비교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 제조업의 M&A 동향 특징

첫째, (전반적인 동향) 한국 제조업은 M&A가 부진하다. 국내 제조업 M&A는 거의 100억~20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그리고 2014~2016년간 실적은 이전 3개년에 비해 거래금액은 29% 증가했는데, 이는 독일 307% 증가, 중국 257% 증가, 미국 107% 증가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건당 금액 증가율면에서도 한국은 불과 3% 늘었지만 독일 289% 증가, 중국 231% 증가, 미국 88% 증가할 정도로 이들 국가는 제조업 M&A가 대형화하고 있다.

둘째, (M&A 업종) 한국 제조업은 금융업, 소비재(경기)업종의 기업을 많이 M&A한 데 비해 비교국은 주로 소비재(경기, 비경기), 기초소재업종에서 인수했다.

< 국내 M&A 실적 : 전업종 vs 제조업 >



< 주요국 제조업 M&A 실적 비교 >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중국
거래금액 증감률	29%	107%	36%	307%	257%
거래건수 증감률	25%	10%	-7%	5%	8%
건당금액 증감률	3%	88%	46%	289%	231%

자료 : 블룸버그 자료 활용해 HRI 산출.

주 : '증감률'은 2011~2013년 실적 대비 2014~2015년 실적 증감률(%)을 나타냄.

한국 제조업은 2014~16년 동안 금융(이전 3개년 비교 678.8% 증가)업과 소비재(경기)(175.1% 증가) 업체를 주로 M&A했다. 미국과 일본 제조업이 소비재(비경기) 업종, 독일이 기초소재업과 소비재(경기, 비경기) 업종에서 많이 M&A했던 것과 비교하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한편 중국은 제조·상사업, 기초소재, 금융, 통신 등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M&A하고 있다.

셋째, (지역·국경간 M&A) 한국 제조업은 해외 기업을 인수하는 국경간 M&A가 낮은 수준이고 주로 아태-신흥국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제조업 M&A중 국경간 M&A 비중은 한국이 33.7%인 데 비해 일본 65.6%, 독일 96.3%에 달한다. 그리고 한국 제조업 M&A는 아태-신흥국에 72.5% 집중되어 있는 데 비해 일본과 독일은 북미 지역 비중이 각각 44.8%, 76.6%를 차지하고 있다.

넷째, (거래 유형) 한국 제조업은 M&A 유형중 피인수기업의 지배력을 확보하는 '인수합병' 유형이 많이 늘었지만, 비교국(일본 제외)에 비해 미흡하다. 한국은 M&A의 세 유형중 지분 50% 이상 인수하는 '인수합병' 유형이 2014~16년 기준으로 이전 3년간에 비해 51% 늘었으며, 전체 M&A의 81%를 차지했다. 그렇지만 증가율면에서 독일(+334%), 중국(+288%), 미국(+125%) 모두 한국보다 높았으며, 전체 비중면에서도 독일 97%, 중국 89%, 미국 88%로 나타나 비교국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다섯째, (제4차산업혁명 관련 업종) 한국 제조업은 제4차산업혁명 관련 업종의 M&A가 저조하다. 한국 제조업은 기술, 통신, 생명공학 등 제4차산업혁명 관련 업종의 M&A가 2014~2016년 동안 이전 3개년에 비해 12% 증가했다. 이에 비해 중국은 624% 증가했으며, 미국 115%, 독일 122%, 일본 37% 증가하는 등 모두 한국보다 크게 증가했다. 한편 한국 제조업은 기술업종 중 소프트웨어 업종의 M&A가 522%나 증가해 최근 소프트웨어 기술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사점

첫째, 제조업 고유의 경쟁력 및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수단으로서 M&A를 활성화하는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둘째, 기존 주력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제4차 산업혁명 대비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M&A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M&A 시장을 활성화하여 제조업 및 기술혁신형 창업을 촉진하고, 기존 제조업을 고도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넷째, 국경간 M&A 특히 북미지역 기업을 중심으로 M&A가 활성화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제조 혁명을 강력 추진하고 있는 중국, 일본, 독일의 제조 M&A 동향을 파악해 기술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대응 체계 마련이 요청된다.

여섯째, 글로벌 경쟁력 확충을 동기로 국내외 대형 경쟁 업체(또는 사업 부문) 인수를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1. 연구배경

- 국내 제조업은 GDP 성장률을 하회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는 성장력을 회복하고,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제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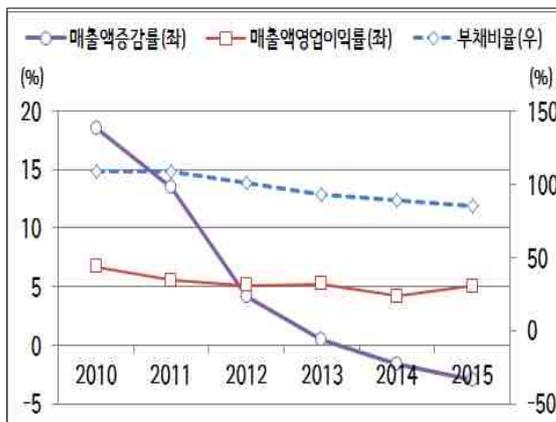
- 국내 제조업은 외형 성장과 경쟁력 확충이 당면 과제로 대두

- 매출액증가율: 2010년 18.5%였던 매출액증가율이 급락해, 2013년 0.5%, 2015년 -3.0%로 마이너스 성장까지 하락
- 제조업 경쟁력: 미국 경쟁력위원회는 매3년마다 발표하는 글로벌제조경쟁력지수 순위에서 한국 제조업이 2010년 3위, 2012년 5위, 2015년 5위로 발표했으며, 2020년에는 6위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 (아래 그래프 참조)
- 다만 외형 성장은 부진하지만 수익성(매출액영업이익률), 건전성(부채비율)은 유지 (아래 그래프 참조)

- 더욱이 빨라지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추세에 대응, 기존 주력제품과 융합해 정보통신기술(ICT) 등 새로운 사업 역량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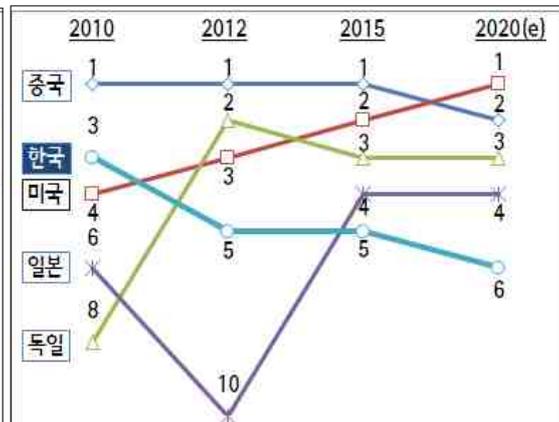
- 제4차 산업혁명으로 제조업에는 기존 제품·기술에 정보통신, 바이오, 환경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융합한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요청

< 국내 제조업 실적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세계 제조업경쟁력지수 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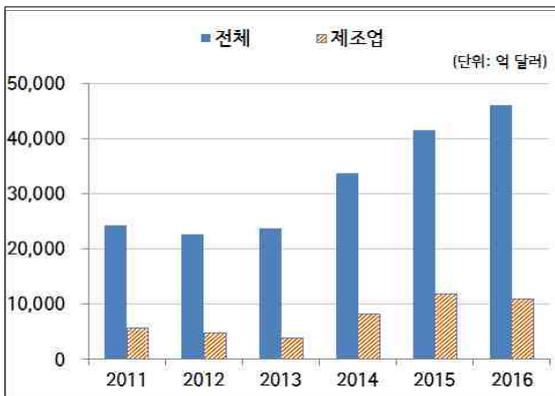


자료 : U.S the Council on Competitiveness, Global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Index, 2016.

주 : 숫자는 당해년도 순위를 의미.

- 이에 대응, M&A와 같은 비유기적 성장(inorganic growth)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
 - 비유기적 성장은 M&A, 산업정책 등 외부 요인에 기반한 성장을 의미하며, 이와 비교해 생산성 증대, 비용 절감등 내부 역량에 의한 성장을 유기적 성장(organic growth)이라 부름
 - 비유기적 성장 전략은 고비용, 고리스크 전략이지만 사업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융합기술을 활용한 주력사업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필수 수단
-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M&A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M&A는 2014~2016년간 이전 3개년과 비해 거래금액이 115% 증가
 - 전세계 M&A(인수기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거의 정체를 보이다가 2014년부터 급증하는 추세를 보임
 - 제조업 M&A도 2013년까지 소폭 하락세를 보이다 2014년 전년대비 약 2배 급증하는 실적을 보였으며, 최근에는 1조 달러 이상의 실적을 시현
 - 급증한 2014년을 기점으로 전후 3개년간의 M&A 실적을 비교하면 전세계 실적은 거래금액 72% 증가, 거래건수 29% 증가했으며, 거래 건당 금액이 1.1억 달러로 33% 증가
 - 동기간 제조업 M&A는 거래금액 115% 증가, 거래건수 10% 증가했으며, 그리고 건당 금액이 97% 증가하면서 대형화하고 있음

< 전세계 M&A 추이 >



자료 : 블룸버그
주 : M&A 인수 기준.

< 전세계 제조업 M&A 실적 : 2011~13 대비 2014~16 증감률 >

구분	전업종	제조업
거래금액 (A)	72%	115%
거래건수 (B)	29%	10%
건당금액 (A/B)	33%	97%

자료 : 블룸버그
주) M&A 인수 기준.
2) 증감률(%)은 2011~13 합계 실적 대비 2014~16 합계 실적의 증감률(%).

○ 본 연구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최근 M&A 동향을 한국, 미국, 독일, 일본, 중국과 비교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 분석 틀: 제조업을 M&A 인수 업종, 타업종을 M&A 피인수 업종으로 해서 주요국과 비교하여 최근 M&A의 동향을 살펴봄

- 분석방법: M&A가 증가하고, 주요국의 제조 혁명이 본격화한 2014년을 기준으로 2011~2013년과 2014~2016년 3개년씩 나눠 아래의 분석 항목별 추이와 주요국과 추세 비교
- 비교국가: 한국과 주요 제조 경쟁국인 미국, 일본, 독일, 중국을 선정
- 분석항목: 전체 M&A, 지역별(국경간 M&A 유형 포함) 실적, 업종별 실적, 거래유형별 실적, 제4차산업혁명 관련 업종 M&A 실적
- 이중 제4차 산업 혁명 관련 업종으로는 기술업종(컴퓨터, 사무용/영업용 기기, 반도체, 소프트웨어)을 비롯해, 통신업, 생명공학 업종을 선정

- 자료원 및 기준: 블룸버그 M&A 데이터를 활용

- 블룸버그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업종 및 지역 분류, M&A 거래 실적 및 거래 유형 등의 자료를 정리해, 분석에 활용
- 업종 분류: 인수업종인 제조업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M&A 피인수업종은 블룸버그의 업종 분류¹⁾에 준거
- 지역 분류: 북미, 서유럽, 아시아·태평양 (신흥국), 아시아·태평양 (선진국), 중남미 & 캐리비언, 중동 & 아프리카, 동유럽
- 거래 유형: M&A 유형은 ①기업 매수(지분 50% 이상 인수)하는 인수합병, ②소규모 투자(지분 50% 미만) 및 사모펀드 투자 등 지분 투자를 의미하는 전략적 투자(Investment), ③ 기타 합작투자 등 세 유형으로 분류²⁾
- 거래 실적: 공시된 M&A의 거래 금액 및 건수

1) 기초소재, 통신, 소비재(경기순환형), 소비재(비경기순환형), 에너지, 금융, 제조업상사(공산업/제조업/상사), 기술, 사업 다각화, 공공부문.

2) 블룸버그의 M&A 범위 기준 (자료: 블룸버그 Help Page).

·인수합병(M&A): 전략적 목적으로 기업 또는 자산 통제권 인수(지분 50% 이상).

·투자(Investment): 소규모 매수(지분 50% 이하), 사모펀드 투자, 또는 벤처캐피탈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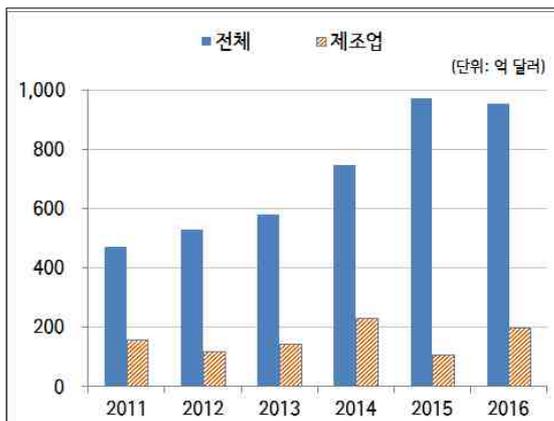
·기타 방식으로 합작투자(Joint Venture), 기업분할(Spin-off), 자사주 매입(Buyback)이 포함.

2. 국내 제조업의 M&A 동향 : 주요국 비교

○ (전체 추이: 한국) 한국 제조업은 M&A가 부진

- 우리나라 제조업 M&A(인수기준) 실적은 거의 매년 100억~20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 지속
 - 이에 비해 2011년까지 400억달러 대에 머물던 국내 전체 M&A 실적은 증가를 지속했으며, 특히 2015~2016년 900억 달러 대에 달할 정도로 급증
 - 전체 M&A에서 30% 정도 차지했던 제조업 M&A 비중은 2016년 20.8%로 축소
- 2011~2013년과 2014~2016년의 3년간 합계 실적 비교에서도 제조업 M&A는 전체 M&A에 비해 금액, 건수 모두 낮은 수준
 - 우리나라 전체 M&A는 2014~2016년간 이전 3년간에 비해 거래금액 69% 증가, 거래건수 60% 증가 등 대폭 늘어났으며, 건당 금액이 6% 증가
 - 이에 비해 제조업 M&A는 거래금액 29% 증가, 거래건수 25% 증가에 그쳤으며, 건당 금액 3% 증가 등으로 부진

< 국내 M&A 실적 : 전업종 vs 제조업 >



자료 : 블룸버그
주 : 인수 기준.

< 국내 M&A의 기간별 실적 비교 : 2011~13 대비 2014~16 증감률 >

구분	전업종	제조업
거래금액 (A)	69%	29%
거래건수 (B)	60%	25%
건당금액 (A/B)	6%	3%

자료 : 블룸버그

주1) M&A 인수 기준.

2) 증감률(%)은 2011~13 합계 실적 대비 2014~16 합계 실적의 증감률(%)

○ (전체 추이: 비교국) 한국 제조업은 주요국과 비교해 M&A가 미흡하고 소규모 M&A가 주도

- 동향: 최근 제조업 육성을 강화하고 있는 독일, 중국, 미국에서 제조업의 M&A가 급격히 늘어나고, 대형화하고 있음

· 2014~2016년 비교국의 제조업 M&A 살펴보면, 이전 3년간에 비해 독일은 거래금액이 307% 증가, 중국 257% 증가, 미국 107% 증가, 일본 36% 증가

· 독일, 중국, 미국 3개국은 건당 금액 증가율이 독일 289%, 중국 231%, 미국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 M&A가 대형화하고 있음 (한국의 건당금액 증가율 +3%)

- 한국 vs 비교국: 한국은 비교국에 비해 M&A 거래건수는 크게 늘었으나 거래금액은 적어, 소규모 M&A에 머뭇

· 2011~2013년과 2014~2016년간 M&A 실적에서 한국은 거래 건수는 25% 증가로 비교국 가운데 가장 많이 늘어난 반면에, 거래금액 증가율(29%)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음

· 한편 독일은 2011~2013년 M&A 금액이 한국보다 약간 적었던 것이 2014~2016년에는 약 3배 많은 규모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M&A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국 제조업 M&A 실적 비교 : 증감률 (금액, 건수) >

구분	전세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중국
거래 금액	115%	29%	107%	36%	307%	257%
거래 건수	10%	25%	10%	-7%	5%	8%
건당 금액	97%	3%	88%	46%	289%	231%

자료 : 블룸버그

주 : 증감률은 2011~2013년 실적 대비 2014~2016년 실적 증감률 (%)

○ (인수 업종) 한국 제조업은 금융업 M&A가 가장 많았으며, 비교국은 소비재, 기초소재업종 인수에 집중

- 한국: 2014~2016년간 M&A 증가율(합계 금액 기준)로 보면, 금융업과 소비재(경기)업³⁾ M&A가 크게 늘어난 반면, 제조·상사업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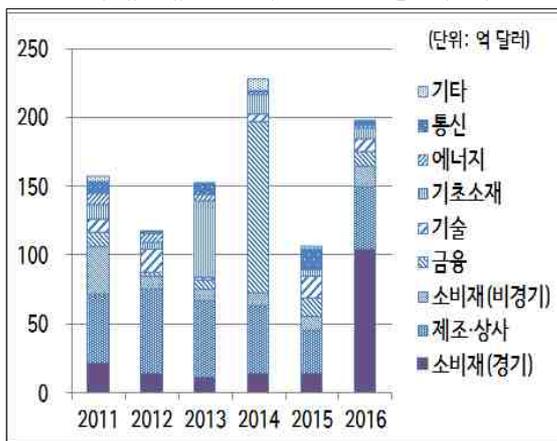
· 국내 제조업이 인수한 업종 중 금융업이 2014~2016년에 이전 3년간 대비 678.8% 증가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다음이 소비재(경기)업 175.1%, 기술업종 12.7%로 나타남

· 반면에 제약, 음식업 등이 포함된 소비재(비경기)업종⁴⁾의 M&A는 32.6% 감소,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 항공, 기계, 전기전자 등이 포함된 제조·상사 업종의 M&A는 25.4% 감소

- 이에 따라 2014~2016년 실적 합계 비중을 기준으로 보면 국내 제조업의 3대 M&A 업종은 금융, 소비재(경기), 제조·상사 순으로 나타남⁵⁾

· 2014~2016년 3년간 합계 비중이 금융업 27.5%, 소비재(경기) 25.3%로 조사
· 그리고 2011~2013년에 M&A의 약 40%를 차지했던 제조·상사업의 M&A는 2014~2016년 15.5%p 줄어든 23.3%에 머뭇

< 국내 제조업의 M&A 업종 추이 >



< 국내 제조업의 M&A 실적 비교 >

업종	2014~16 비중	차이 ¹⁾	증감률 ²⁾
기초소재	5.0%	-11.6%p	-62.5%
통신	3.3%	-0.6%p	5.7%
소비재(경기)	25.3%	13.9%p	175.1%
소비재(비경기)	6.7%	-5.7%p	-32.6%
에너지	1.0%	-3.4%p	-72.1%
금융	27.5%	23.1%p	678.8%
제조·상사	23.3%	-15.5%p	-25.4%
기술	5.9%	-0.6%p	12.7%
기타	2.1%	0.4%p	53.3%

자료 : 블룸버그

주1) '차이' : 업종별 2011~2013년과 2014~2016년의 M&A 비중(금액 기준) 차이(%p).

2) '증감률' : 업종별 2011~2013년 대비 2014~2016년의 M&A 증감률(%).

3) 소비재-경기순환형 업종을 가리키며, 이에 속한 주요 업종은 자동차, 유통, 식품, 섬유 등임.

4) 소비재-비경기순환형 업종을 가리키며, 농업, 음료, 생명공학, 음식, 건강용품, 제약 등이 속함.

5) 2014~2016년 건수 기준 비중: 제조상사 22.4%, 소비재(비경기)업 16.0%, 소비재(경기) 14.4%, 금융업 14.1%.

- 비교국: 미국과 일본은 소비재(비경기) 업종, 독일과 중국은 기초소재업에 대한 M&A가 많으며, 그리고 대다수 국가에서 제조·상사업 M&A가 높은 비중을 차지
 - 미국: 제조업이 인수한 업종의 48.9%가 소비재(비경기) 업종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기술업종 18.1%, 제조·상사업 12.3%의 순서
 - 일본: 인수한 업종은 약 60%가 소비재(비경기)와 제조·상사업에 집중
 - 독일: 인수한 업종은 기초소재(비중 56.5%)가 절대적으로 많으며, 여기에 소비재(경기, 비경기) 업종을 합하면 약 90% 수준에 이름
 - 중국: 업종간 큰 비중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제조·상사업, 기초소재, 금융, 통신 등 다양한 업종에서 M&A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 vs 비교국: 한국 제조업의 업종별 M&A는 금융, 기초소재, 소비재(비경기), 제조·상사업에서 비교국과 추세상 특징적인 차이를 보임
 - 금융업: 한국은 금융업 M&A가 증가한 데 비해, 미국, 일본은 비중이 미미한 데다가 오히려 실적이 줄어든 상황
 - 기초소재: 한국은 기초소재업 M&A가 감소한 데 비해, 미국, 독일, 중국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일본도 소폭 증가
 - 소비재(비경기)업: 한국과 달리 미국, 독일, 중국, 일본은 대폭 증가
 - 제조·상사업: 한국과 달리 미국, 중국, 일본은 대폭 증가

< 비교국의 M&A 업종 실적 >

업종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비중	증감	비중	증감	비중	증감	비중	증감	비중	증감
기초소재	5.0%	-62.5%	9.8%	250.8%	8.1%	5.7%	56.5%	3,012.4%	17.4%	156.5%
통신	3.3%	5.7%	2.8%	-20.2%	6.4%	26.0%	1.5%	25.6%	12.6%	423.0%
소비재(경기)	25.3%	175.1%	3.2%	50.0%	8.3%	23.5%	18.6%	192.8%	9.2%	85.0%
소비재(비경기)	6.7%	-32.6%	48.9%	180.0%	39.4%	45.6%	13.1%	214.1%	10.9%	351.1%
사업다각화	0.4%	324.2%	0.2%	-25.9%	2.0%	103.9%	0.1%	27.8%	1.8%	53.9%
에너지	1.0%	-72.1%	3.6%	-31.2%	7.2%	324.6%	2.5%	139.6%	3.1%	-33.1%
금융	27.5%	678.8%	0.6%	-14.3%	1.3%	-33.6%	0.3%	503.1%	16.1%	899.1%
제조·상사업	23.3%	-25.4%	12.3%	17.8%	21.3%	74.1%	4.5%	-46.9%	19.0%	234.1%
기술	5.9%	12.7%	18.1%	233.0%	5.7%	96.6%	3.0%	272.8%	8.6%	1,215.4%
공공부문	1.6%	30.7%	0.4%	131.4%	0.4%	-85.6%	0.0%	-93.6%	1.4%	118.9%

자료 : 블룸버그

주1) '비중' : 2014~2016년 인수금액 합계의 비중(%).

'증감' : 2011~2013년과 2014~2016년의 3년간 인수합계액의 증감률(%).

2) 국가별 인수 비중이 높은 업종에 색칠.

- (국경간 - 지역 M&A) 한국 제조업 M&A는 아태-신흥국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국경간 M&A는 비교국에 비해 낮은 수준
 - 지역 M&A: 한국 제조업 M&A는 아태-신흥국 기업 인수가 72.5% 차지
 - 2014~16년 전세계 제조업이 인수한 기업이 속한 지역을 살펴보면 북미가 51.3%로 절반을 차지하며, 다음이 서유럽 24.0%, 아태-신흥국 17.9% 해당
 - 한국은 아태-신흥국에 72.5% 집중되어 있고, 북미 기업 비중이 21.0%에 불과하며, 북미지역 비중이 높은 일본(44.8%), 독일(76.6%)과는 큰 차이
 - 다만 중국은 서유럽 비중이 16.6%에 달하고, 북미 비중은 6.0%에 불과
 - 국경간 M&A: 한국 제조업의 국경간 M&A는 33% 늘었으며, 이는 일본 (15%)보다 많지만 독일(442%), 중국(199%)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
 - 해외기업 인수를 의미하는 국경간 M&A가 한국은 2014~2016년에 이전 3년간에 비해 33% 늘었음
 - 비교국 중 동 증감률이 독일 442%, 중국 199%, 미국 40%, 일본 15%로 나타나 한국은 독일, 중국에 크게 못미침
 - 2014~2016년 제조업 전체 M&A 중 국경간 M&A 비중은 한국은 33.7%에 달하는 데, 이는 일본 65.6%, 독일 96.3%에 크게 미흡

< 비교국의 주요 M&A 지역 >

국가	2014~16 피인수 기업 현황		2011~13 대비 증감
	주요지역	비중	
한국	아태-신흥국	72.5%	16.3%
	북미	21.0%	124.1%
미국	북미	29.1%	123.3%
	서유럽	16.2%	64.4%
일본	아태-선진국	35.4%	54.5%
	북미	44.8%	119.1%
독일	서유럽	21.7%	4.9%
	북미	76.6%	3,521%
중국	아태-신흥국	72.8%	248.0%
	서유럽	16.6%	889.4%

< 비교국의 국경간 M&A >

구분	증감률 (2011~13 대비 2014~16)	전체거래 대비 국경간 M&A	
		비중 (2014~16)	차이 (2011~13 대비 2014~16)
한국	33%	33.7%	1.0%p
미국	40%	25.6%	-12.1%p
일본	15%	65.6%	-11.8%p
독일	442%	96.3%	24.0%p
중국	199%	31.8%	-6.1%p

자료 : 블룸버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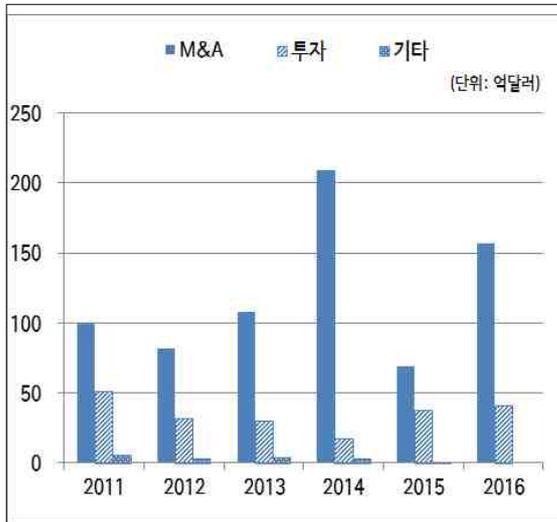
주1) 블룸버그 지역 분류 기준, 인수 금액 기준.

2) 2014~16년 인수금액 기준으로 비중과 2011~13년과 비교한 증감률(%), 차이(%p) 표시.

○ (거래 유형6) 한국 제조업 M&A는 인수기업의 지배력을 확보하는 ‘인수합병’ 유형이 많이 늘었지만, 비교국(일본 제외)과 비교해 미흡

- 동향: 지분 50% 이상 인수하는 ‘인수합병’ 유형이 81% 차지
 - 한국 제조업 M&A는 인수 기업 지배를 목적으로 지분 50% 이상을 인수하는 ‘인수합병’ 유형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전략적 투자’ 유형이 18% 차지
 - ‘전략적 투자’ 유형은 금액 기준으로 15% 줄어들었지만, 거래건수 기준으로 전체 거래건수의 30%대 수준였던 것이 2015년 43%, 2016년 51%로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음
- 한국 vs 비교국: 비교국 모두 ‘인수합병’ 유형의 비중과 증가율이 한국보다 높게 나타남
 - 비중: 2014~2016년간 인수합병 유형의 비중이 독일 97%, 중국 89%, 미국 88%, 일본 85%로서 비교국 모두 한국(81%)보다 높음
 - 증가율: 2011~2013년 대비 2014~2016년 증가율면에서도 ‘인수합병’ 유형이 타유형보다 아주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며, 독일 +334%, 중국 +288%, 미국 +125%로서 한국(51%)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 국내 제조업 M&A 추이 : 거래유형별 >



< 주요국 비교 : 거래유형별 >

구분	2011~13 대비 2014~16 증감률 (2014~16 거래유형별 비중)		
	인수합병	전략적투자	기타
한국	51% (81%)	-15% (18%)	-75% (1%)
미국	125% (88%)	24% (3%)	-25% (9%)
일본	29% (85%)	58% (12%)	23% (3%)
독일	334% (97%)	42% (3%)	-50% (0%)
중국	288% (89%)	114% (10%)	-63% (0%)

자료 : 블룸버그

주 : 괄호안은 2014~2016년 거래 유형별 비중(%)

6) 거래 유형에 대한 설명은 “주 2)”를 참조

- (제4차산업혁명 관련 업종) 한국 제조업은 주요국에 비해 기술, 통신, 생명공학 등 제4차산업혁명 관련 업종의 M&A가 대체적으로 저조
 - 동향: 한국 제조업은 2014~2016년 제4차산업혁명 관련 업종의 M&A가 이전 3개년에 비해 12% 증가, 전체 비중은 1%p 감소
 - 기술 업종 중 소프트웨어는 522% 증가해 한국 제조업의 주요 M&A 업종으로 부각
 - 한국 vs 비교국: 제4차산업혁명 관련 업종의 M&A가 미국 +115%, 일본 +37%, 독일 +122%, 중국 +624% 등 모두 한국 (+12%)보다 크게 증가
 - 기술업종의 경우, 미국(+233%), 일본(+97%), 독일 (+273%) 중국 (+1,215%) 등 비교국 모두 한국(+13%)에 비해 크게 늘어났음
 - 중국은 제4차산업 관련된 모든 업종에서 624% 증가해 비교국보다 월등히 많은 M&A를 단행

< 제4차산업혁명 관련 업종의 M&A 실적 : 2011~13 vs 2014~16 >

업종	항목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중국	
기술	증감률	13%	233%	97%	273%	1,215%	
	비중	6%	18%	6%	3%	9%	
	차이(%p)	-1%p	7%p	2%p	0%p	7%p	
	반도체	증감률	-19%	224%	814%	635%	1,122%
		비중	4%	8%	4%	1%	2%
		차이(%p)	-2%p	3%p	3%p	0%p	1%p
	소프트웨어	증감률	522%	80%	27%	250%	1541%
		비중	1%	3%	1%	2%	5%
		차이(%p)	1%p	0%p	0%p	0%p	4%p
컴퓨터	증감률	62%	413%	-44%	74%	874%	
	비중	1%	8%	1%	0%	2%	
	차이(%p)	0%p	5%p	-1%p	0%p	2%p	
사무용/영업용 기기	증감률		350%	23%		13,950%	
	비중	0%	0%	0%	0%	0%	
	차이(%p)	0%p	0%p	0%p	0%p	0%p	
통신	증감률	6%	-20%	26%	26%	440%	
	비중	3%	3%	7%	2%	14%	
	차이(%p)	-1%p	-4%p	-1%p	-3%p	5%p	
생명공학	증감률	68%	56%	-36%	69%	1,131%	
	비중	0%	5%	1%	0%	1%	
	차이(%p)	0%p	-1%p	-1%p	0%p	1%p	

자료 : 블룸버그 자료 활용해 HRI 재산출.

주1) '증감률' : 2011~13년 실적과 2014~16년 실적의 증감률(%).

주2) '비중' : 2014~16년 각국의 전체 M&A에서 해당 업종의 M&A의 비중(%).

주3) '차이(%p)' : 2011~13년 실적과 2014~16년 실적간 전체 M&A에서의 비중 차이(%p).

3. 시사점

- 제조업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사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방안으로써 M&A를 유효 정책 수단으로 적극 활용이 요청
 - 첫째, 제조업 고유의 경쟁력 및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수단으로서 M&A를 활성화하는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제조업의 융합화, 서비스화 추세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제조업 내부에서 개발해 대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너무 지체
 - 개별 기업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에서 제4차 산업혁명 대응과 국내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을 직접 M&A하는 방안을 마련
 - 정책 대안의 하나로서 국부펀드나 국가 R&D 예산, 그리고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이 나서서 제조업 공통적으로 활용할 차세대 기술이나 사업 기반을 보유한 업체를 M&A하는 실행하는 방안도 필요
 - 둘째, 기존 주력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제4차 산업혁명 대비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M&A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제조업 M&A가 구조조정 기업 또는 규모 경제성 강화 측면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화 추구, 차세대 제조업 모델 구축에 목표를 두는 M&A를 촉진하는 맞춤형 M&A 정책이 필요
 - M&A를 활용한 산업 혁신이 촉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금융 및 세제 지원,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마련해 M&A 활성화를 촉진
 - 셋째, M&A 시장을 활성화하여 제조업 및 기술혁신형 창업을 촉진하고, 기존 제조업을 고도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 국내 스타트업 및 벤처 기업 대상의 M&A 시장을 활성화하여 우수 기업을 조기에 발굴, 육성하고 투자자금을 회수, 재투자하는 M&A 선순환 사이클 구축이 시급한 상황
 - 제조업 변혁에 필요로 하는 제품, 서비스, 공정 등과 관련된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제조업체가 스타트업, 벤처 제조업체를 M&A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더욱 절실한 상황

- 넷째, 국경간 M&A 특히 북미지역 기업을 중심으로 M&A가 활성화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해외 기업 M&A는 조기에 선진 기술 및 인력을 확보하여 시장 진입 장벽 구축,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을 포함한 주력 제품 고도화,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의 기대 효과가 큼
 - 국내기업의 주력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한 M&A 대상 기업 발굴부터 가치 평가 등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
 - 국경간 M&A가 집중되고 있는 북미지역 기업 그리고 일본, 독일의 구조조정 재편 과정에서 매물로 나올 기업들의 M&A 정보 수집 등 지원을 강화

- 다섯째, 제조 혁명을 정책적으로 강화중인 중국, 독일, 일본 제조업의 M&A 동향을 파악하고, 해외 우수 업체를 선점하는 대응책을 마련한다.
 - 제4차산업혁명 대응 및 제조업 고도화를 목표로 중국, 독일, 일본 등의 M&A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상황
 - 동북아 주변국의 핵심 정책 이슈인 일본의 초고령화 사회 대응, 중국의 제조 혁명 강화에 맞서 국내 업체가 사전 대응해 이들 국가 및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합작 및 전략적 제휴를 포함한 M&A 전략을 수립
 - 또한 경쟁국가보다 앞서서 해외 우수 기업의 인수 발굴부터 인수 및 투자 협상, 금융 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강구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

- 여섯째, 글로벌 경쟁력 확충을 동기로 국내외 대형 경쟁 업체(또는 사업 부문) 인수를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주력 산업의 경쟁력 및 캐쉬카우 확대를 위해서는 차세대 기술 확보 목적의 M&A 뿐만 아니라 국내외 동종 경쟁업체를 M&A하는 게 필요
 - 민간 자율적인 M&A를 통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일반적으로 대규모 M&A가 수반되는 관계로 재무적 지원 확충을 위한 정책이 요청

이장균 수석연구위원 (2072-6231, johnlee@hri.co.kr)